

性情과 表裏證과의 關係

趙 晃 晟*

緒 論

李¹⁾는 東武學이 先秦 洙泗學에서 淵原한 新人間學이나 儒學思想 主理 主氣의 어느 편에도 傾倒되지 않은 四象說이라는 經學的 基調에 의하며, 四象醫學說도 이에 근거 한다 하였고, 宋²⁾은 內經의 五藏人論이 道敎思想의 바탕하의 相生相克의 陰陽五行說에 근거한 陰陽의 輕重으로 구분한 것이라면 四象醫學의 四象人은 기존 性理學에서 탈피한 改新儒學의 事心身物論에 근거한 性情의 편차를 心身の 類型으로 구분한다 하였다. 즉 心과 身의 兩面性은 곧 心의 상태-性情의 상태-와 疾病 조건이 相互 關聯性을 의미하므로 論者는 性情을 指標로 四象病證의 表裏概念과의 相關性을 考察하고자 한다.

本 論

東武의 四象醫學은 性情을 기본으로 한다. 즉, 性情을 기준으로 한 藏腑의 大小와 그로 인한 四象人의 구별이 생기고 또한 四象人의 모든 生理, 病理, 藥理가 그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四象醫學은 性情醫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四象人의 病證의 진행은 性情의 상태와 그 軌道를 같이 하므로 四象方의 해설은 四象人의 病證과 그에 영향을 주고 받는 性情의 상태, 또 東武 藥性歌에 의한 本草 精神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人間의 心에는 性과 情의 두가지 要素가 共存하고, <格致藥> “獨行篇”에 耳目口鼻의 기운은 心慾 중 私(事)의 차원이며 이는 出於屈伸動靜(身の次元)이고, 肺脾肝腎의 기운은 慾(物)의 차원이며 이는 出於志意魂魄(物の次元)이라 하였다. 또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內觸小腸病論”에서 性은 表氣(耳目鼻口, 腦髓, 腎, 腰, 膀胱)를 傷하고 情은 裏氣(四臟, 四腑)를 傷한다고 하였다. “臟腑論”에 耳目鼻口의 深遠廣大와 淺近狹小는 神氣血精(脈膜血精)의 全體的 意味로 四焦의 개념의 生과 耗에 關여한다고 하였고, 肺脾肝腎의 偏奇過不及은 津膏油液(前四海, 物의 개념)의 充劑에 關여한다 하였다. 또 “擴充論” 序頭에 哀怒喜樂의 性과 情은 각각 耳目鼻口(天機)와 肺脾肝腎(人事)의 氣運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天機(事)로는 性을 論하고(太陽之耳, 太陽之鼻. . .), 人事(心)로는 情을 論하고(太陽之脾, 太陽之肝. . .), 行(身)으로 性을 論

* 서울 조황성한의원

하고(太陰之額, 少陰之臆. . .) 知(物)로는 情을 論하였다.(少陰之頭, 太陰之肩. . .)

그러므로 表病의 개념은 天機와 行, 즉 事와 身의 概念이며 이는 곧 性의 概念이며, 이는 社會에 대한 나의 認識이고, 또 裏病의 概念은 人事와 知, 즉 心과 物의 개념이며 이는 곧 情의 概念이며, 이는 나와 他人과의 관계에서 他人에 대한 나의 認識이다.

그러나 性情에 대한 表裏概念이 완전 二分된 概念은 아니다. 東武는 <四端論>에서 性의 極한 상황에서는: 相成 相資의 論理에 의하여 情이 動하여 太陽人의 忿怒激外, 少陽人의 悲哀動重 少陰人의 喜好不定, 太陰人의 侈樂無厭의 상황이 나타난다 하여 性情 相互間의 緣係性을 제시하였다. 이는 前後 四海가 天機 人事의 兩軸에 의하여 循環하는 이유(즉 社會와 個人認識, 先天後天之氣의 相互 緣係)와 같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表病의 概念은 心理的으로 社會의 概念이며, 生理 病理的으로 天機(耳目鼻口)의 영향하의(臟膜血精) 개념이며, 이는 先天의 要素가 강조되었고, 이는 行(身)의 奪侈懶竊之心(怠行)에 의해 직접적으로 消耗되고, 이 결과 行의 識見, 威儀, 材幹, 方略의 氣運이 消滅되어 先天의 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保命之主의 損傷을 초래한다..

裏病의 개념은 心理的으로 나와 타인의 관계이며 生理 病理的으로 人事의 영향하에(津膏油液) 後天的인 四臟 四腑의 概念이며, 이는 知(物)의 矯矜伐夸之心(私心)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모되고 이 결과 知의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의 장애로 이는 升降을 방해하는 조건을 야기한다.

또 위에서 언급한 性情表裏의 相互關係에서 表

病의 極甚은 裏病에서, 裏病의 極甚은 表病에 相互影響을 미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擴充論>에 의한 少陰人 表證의 心理 상태는 少陰人 樂性이 深擴하므로 이는 少陰人의 口가 地方을 살필 때 못사람들이 서로 보호해 줌을 즐겁게 여기는 것이니, 樂性이란 다름아니라 맛 보는 것이다.

즉 少陰人은 맛 보되 地方에 대하여 넓게 통하나, 世會에 대하여 넓게 통할 수 없다. 즉 樂性이 深擴하면 그 정도가 더욱甚하여 이는 行에 영향을 주어 奪心(怠行)이 發하여 識見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生理는 心理 상태이다. 즉 樂性의 深擴은 升陽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少陰人 表證의 鬱狂證과 亡陽證의 心理 상태는 性의 天機面에 있어서 世會(目)에 대한 둔감과 行에 있어서 識見(頭)에 대한 不移行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예는 鬱狂證의 初證은 “腎陽困熱”의 원인으로 太陽病證을 수반하면서 “其人如狂”, “如見鬼狀”, “亂語”, “謔語” 등의 심리 상태와 下焦의 血證, 熱入血室 등이 나타나고, 鬱狂證의 中, 未證은 腎陽困熱의 더욱 심화된 상태로 陽明病證을 수반하면서 循衣摸床 惕而不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亡陽證은 처음부터 陽氣의 不足한 상태에서 病이 시작 되므로 그 素證이 勞心焦思와 亡陽의 상태(有時以 泄瀉爲憂 每飯時汗流面 등. . . .)에서 心痞胸煩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반면에 少陰人 裏證의 心理狀態는 少陰人의 喜情은 黨與에 대하여 바로 설 수 있지만 少陰人의 怒는 交遇에 대하여 융통할 수 없으므로 交遇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少陰人의 浪喜(喜情이 動한 狀態)는 黨與에 있지 않고 반드시 交遇에 있다. 즉 少陰人의 人事 중 交遇에 적응치 못하면 (慮患之心이 부족하므로) 喜情이 動하여 이는 知

에 영향을 주어 矜心이 不發하여 經倫이 일어나지 않아 煩燥가 쌓이고(陰氣가 쌓이는 현상) 計策이 窮하여 隔陽의 상태까지 이른다.

이는 裏證은 情의 人事面에 있어서 交遇(脾)에 적용치 못하고 知에 있어서 經倫(臆)이 없을때 발생한다.

또 表裏 相關 關係에서 哀怒相成喜樂相資의 論理에 의하여 樂性極하면 喜情動하므로 少陰人 樂極不成하면 喜好不定의 心理상태가 出現한다.

結 論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이 四象人의 性情과 表裏 關係에 대한 相關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註

- 1) 한국개신유학사試論 : 이을호, 383,384.
- 2) 알기쉬운 사상의학 : 송일병, 126,130.

			表證(性)		裏證(情)	
	性	情	天機(事)	行(身)	人事(心)	知(物)
少陰人	樂	喜	口-能地方 目-不能世會	頭-戒奪心 在識見 (浪喜時)	肝-黨與 脾-交遇	臆-戒矜心 在經倫
太陰人	喜	樂	鼻-能人倫 耳-不能天時	肩-戒侈心 在威儀 (浪樂時)	腎-居處 肺-事務	惝-戒驕心 在籌策
少陽人	怒	哀	目-能世會 口-不能地方	腰-戒懶心 在材幹 (暴哀時)	肺-事務 腎-居處	腹-戒夸心 在度量
太陽人	哀	怒	耳-能天時 鼻-不能人倫	腎-戒竊心 在方略 (暴怒時)	脾-交遇 肝-黨與	臍-戒伐心 在行檢